

DR콩고, IMF의 5.5억 달러 지원 결정의 의의

1. 금융지원 내역

□ PRGF를 통한 5.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승인

- 2009년 12월 11일 IMF는 DR콩고에 대한 5.5억 달러의 금융(만기 10년) 지원을 승인하였음. 빈곤감축성장 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에 따른 이 자금 중 8천만 달러는 승인과 동시에 인출되었고, 나머지는 7차례에 걸쳐 제공될 예정임.
- 6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친 이번 금융지원 결정은 특히 2007년에 체결된 ‘중국-DR콩고 협력협약’¹⁾(Sino-Congolese Cooperation Agreement: SCCA)이 IMF의 요청에 따라 공식 수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이 나라는 2002년 6월에도 PRGF로 9.2억 달러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2009년 3월에는 21억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²⁾(Exogenous Shocks Facility)을 지원받은 바 있음.

PRGF의 주요 내용

- IMF가 회원국 중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의 빈곤감축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199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PRGF는 빈곤감축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를 기초로 금융지원의 목적과 정책 등을 마련함.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IMF가 공동

1) 당초 협약 내용은 중국이 DR콩고에 총 90억 달러(광산개발에 30억 달러 및 항만, 공항, 병원, 댐 등 인프라 건설에 6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DR콩고가 중국에 구리 1천만 톤, 코발트 60만 톤의 채굴을 허용하는 것임.

2) PRGF내의 기금으로,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제수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적 성격의 기금임.

주도하는 고채무저소득국해결방안³⁾(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s: HIPC Initiatives)의 채무경감에도 활용됨.

- PRGF의 추진 원칙

1. 해당국 정부의 주도 하에 사회전반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
2. 빈곤감축과 경제성장이 목적이거나 거시경제가 안정될 경우 해당국의 상황, 빈곤해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조절 가능
3.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2008년 8월 기준으로 PRGF 지원가능 대상국⁴⁾은 78개국이며, 이자율은 연 0.5% 수준임.

- 또한, IMF는 PRGF를 승인함과 아울러 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DR콩고의 대IMF 채무 7,300만 달러에 대한 잠정채무구제(Interim Debt Relief) 결정도 승인하였음⁵⁾.

<표 1> IMF의 대 DR콩고 차관 지원 현황

(백만 달러)

자금 종류	승인일	유효일	승인액	인출액	잔액
PRGF	2009.12.11	2012.12.10	554	80	603
	2002. 6.12	2006. 5.31	928	884	
대기성차관	1989. 6. 9	1990. 6. 8	186	120	-

자료: IMF.

□ DR콩고에 대한 PRGF 프로그램의 개요

- 2012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관리, 재정건전성 강화, 채무 감당능력 확보와 구조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3) 1996년 IMF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출범한 HIPC Initiative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고채무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채무를 지속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1단계인 Decision Point에 도달하면 채무구제 여부 및 구제규모를 결정하여 잠정채무구제가 가능해짐.

4)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1,095 달러 이하인 국가(세계은행의 양허성차관 지원 기준)

5) DR콩고는 2003년 7월에 HIPC Initiative의 Decision Point에 도달하였음.

- 주요 목표
 - 평균 경제성장률: 2010~12년 중 연 5.5%
 - 소비자물가상승률: 2012년 말 기준 9% 이내
 - 외환보유액: 월평균수입액의 2.5개월분 이상
 -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25% 이내
- 주요 구조개혁 내용(예정)
 -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등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 예산에 대한 계획,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감독권한 강화

2. IMF의 지원 배경

□ 국제상품가격의 하락 및 국경 분쟁으로 경제 악화

- DR콩고는 1998~2003년의 내전으로 인적자원, 인프라 등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등 광물자원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중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예년보다 크게 낮은 2.7%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2008년 9월 반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동부 국경지대의 분쟁은 군비조달을 위한 화폐발행 증가로 이어지며 2009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물가상승률도 연 40%대로 급등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통화가치의 하락 및 외환보유액 감소

- 콩고 프랑화의 가치는 2008년 12월~2009년 9월 중에 미달러화 대비 35% 하락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은 2009년 2월에 사상최저 수준인 3천만 달러로 감소하기도 하였음.
- 이후 SCCA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 등 국제원조가 지속되며 2009년 9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2>

DR콩고 주요 경제지표

(콩고프랑, 월, %)

구 분	2007	2008	2009e	2010f
경제성장률	6.3	6.2	2.7	5.4
재정수지/GDP	-2.5	-2.3	-3.2	-12.2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16.7	18.0	45.0	24.7
경상수지/GDP	3.0	-12.3	-13.0	-24.1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1.5	1.0	9.9	8.7
콩고프랑(평균, 미달러당)	516.0	563.2	775	820

자료: IMF, EIU.

□ 고채무상황 지속으로 인한 외채감당능력 악화

○ 국제 원조 등을 통한 경감분을 제외한 DR콩고의 총외채잔액은 2008년 말 기준 131억 달러로 GDP 대비 93%, 총수출 대비 150%, 재정수입 대비 502%에 달하였음. 2010년 2월 현재의 총외채잔액도 약 130억 달러로서 고채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DR콩고는 2003년 7월에 HIPC의 Decision Point에 도달하여 HIPC Initiative를 통해 채무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IMF 등 개발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 연체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으로 전환⁶⁾되지 않는 한 외채감당이 어려운 상황임.

<표 3>

DR콩고 외채현황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e
총외채잔액	13,425	13,149	12,785
총외채잔액(현가)	10,820	10,729	10,603
총외채잔액(현가)/총수출	264.5	189.7	175.5
외채상환도래액	739.6	891.2	815.5

자료: IMF.

6) HIPC Initiative의 Decision Point 도달 이후 (1) IMF/세계은행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2) 주요 사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개혁 실행, (3) 최소 1년 이상의 PRSP에 대한 설정 및 실행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게 되어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MDRI)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해당국은 MDRI 프로그램을 통해 Decision Point에서 결정된 채무구제액 중 기 실시된 잠정채무구제를 제외한 잔여 전체채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함.

□ DR콩고,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DR콩고 협력협약' 수정 성공

- DR콩고는 IMF의 조속한 PRGF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IMF는 2007년에 체결된 SCCA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공식 언급함.
 - IMF는 세계 금융위기로 국제상품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 나라의 광물수출수입이 인프라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며, 중국이 상업적 조건으로 DR콩고를 지원한다면 외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함.
- DR콩고는 2009년 8월 IMF,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상의 지원규모를 9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줄이고, 인프라 건설에 대한 DR콩고 정부의 보증조건을 제외하기로 동 협약을 수정하였음.
 - 이로써 DR콩고는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HIPC Initiative상의 채무 감당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중국과의 협약을 수정함으로써 IMF의 PRGF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 DR콩고에 대한 IMF 채무경감조치에 대해 파리클럽도 동의

- DR콩고의 총 외채잔액 중 100억 달러 이상이 파리클럽(Paris Club)⁷⁾ 소속 국가들에 대한 채무임을 고려하여, IMF는 DR콩고 앞 PRGF 지원과 채무경감 개시를 위해서 파리클럽의 대 DR콩고 채무재조정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제시
 - 미국과 캐나다가 자국 광산기업들과의 채무연체 등을 이유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09년 11월에 모든 회원국이 IMF의 채무경감조치에 동의하였음.

7) 파리클럽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19개 회원국 공적 채권국가들의 비공식 회의체로 1956년 첫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주로 개도국의 공적채무(Public Sector Debt) 구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함.

<표 4> 파리클럽의 DR콩고 채무탕감 및 재조정 현황 (진행중)

(억 달러)

	총외채잔액	파리클럽분	탕감액	채무재조정액
2002년 9월	143	97	46	43
1989년 6월	-	15	5	-

자료: 파리클럽.

3. 전망**□ PRGF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으로 장기적 성장 토대 마련**

- PRGF 프로그램을 통해 DR콩고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구도 정착, 인플레이션 완화, 재정건전성 개선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기업 개혁, 지배구조 개선, 전반적인 영업환경 규제 완화, 빈곤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분 추가확보 등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다이아몬드, 코발트, 구리 등을 바탕으로 2003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광산업은 향후 DR콩고의 장기적 경제성장 전망을 밝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

□ HIPC Initiative를 통한 채무경감조치로 채무상환부담은 크게 완화될 듯

- 파리클럽이 HIPC 채무경감조치에 동의함으로써 IMF는 DR콩고의 총외채잔액이 현재의 130억 달러 수준에서 4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DR콩고에 대한 신규 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IMF, 2010년 중 DR콩고의 MDRI 대상국으로 전환 가능성 전망

- DR콩고가 향후 HIPC Initiative의 2단계인 Completion Point에 도달, MDRI 대상국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채무탕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PRG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 브라이언 에임스(Brian Ames) IMF Mission Chief는 DR콩고가 2001년에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도 크게 완화되었다고 지적하는 등 사회 및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아울러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DR콩고 경제가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PRG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원조가 지속된다면 2010년 중반 경에 MDRI 대상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조사역 반형섭 (☎ 02-3779-6665)
E-mail: hsbhan@koreaexim.go.kr